나주 SRF발전소 가동 법적 분쟁 일단락

대법. 심리속행 불가 결정 가동 중단 피해보상 여부 등 나주시-난방공사 갈등 변수

나주SRF(고형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였던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법 적 분쟁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하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 논란, 지역민과 시민

단체의 반발 등 갈등으로 번질 변수는 여전하다.

3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 서 심리속행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난방공사가 승소한 상황 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이 더는 심리를 이어 가지 않겠다고 한 만큼 승패는 난 셈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1, 2심 소송에서 "열병합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사업계획이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도 명확하지 도 않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법적 소송에서 애초 협약에 없는 광 주지역 쓰레기 반입, 야적장 쓰레기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가동 중 단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 등을 놓고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수년간 시위 등 가동에 강력히 반대해왔던 나 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사용 저지 공동대책위 원회 등 시민단체와 지역민의 반발 또한 또 다른

300억원대로 추산된다.

나주시 인수위원회도 "발전소 가동에 대한 책 임 회피를 위해 소송에만 매달린 결과 이제는 법 적 수단,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며 "민선 7기 나 주시정의 보여주기식 이중적 대처로 가동은 피 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패소로 발전소 가동 자체는 못 막지 만, 반입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반입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문제의 원천인 광주 쓰레

기 반입 문제는 지난 5월 광주전남 시도와 상생 정책 협약을 통해 자체 처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판결로 발전소 가 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보했으 갈등의 불씨다.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며, 철저한 환경 관리와 함께 투명한 발전소 운영 을 하겠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가동에 다 른 손실 보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배상 청구 등 시와의 법적 분쟁 여지는 여전하다.

한편 난방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 공급을 위해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SRF 발전소는 2017년 9월 준공됐지만, 시험가 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과 일 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시가 사업 개시를 불허, 수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나주=이재순 기자



미리바캉스 거북이 만들기 체험

2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미리 바캉스' 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바다속 돌멩이로 거북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시민단체 "협치정신 근거 지방의회 구성해야"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3일 협치정신에 근거한 지방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 "광주시 의회와 각 구의회가 이번 주에 의장단과 상임위 원장 선출에 나서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 당이 성숙한 협치의 정신에 입각해 의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비 민주 당 구의원들이 단지 소수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은 시민의 이익과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수당인 민주 당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되,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정치를 펼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들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협치의 정신에 입각한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새로운 정치 문화 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 고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정치의 효능감을 높여 달라는 광주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임채민 기자

노래방 난동 공무원 입건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을 폭행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산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재 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

광산구청 소속 주무관급 공무원인 A씨는 지 난달 9일 오후 9시께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업 주 등과 시비를 벌이다가 업소 기물을 파손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 위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영봉 기자

"취임사·청사진도 없나?"

광산구 민선 8기 첫날 '비난' 청장 동정 담은 보도자료 1건뿐

광주시 광산구가 민선 8기 출범 첫날, 향후 4 년 구정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내놓 지 않자 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 취임한 지난 1일 공식 보도자료나 사회관계 망(SNS) 계정 등 소통 수단을 통해 구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전국 모든 지자체의 신임 단체장들이 지역 현 안과 과제를 정리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주민들 에게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내놓을 때, 박 청장 은 광산구민들을 향한 작은 메시지 하나 없이 취임 첫날을 마무리했다. 광산구가 이날 내놓은 자료는 노인복지관과 고려인마을 등을 방문하 고 공직자와 대화를 나눈 박 청장의 동정을 담 은 보도자료 1건이 유일했다.

박 청장의 취임사를 대신한다며 광산구가 공 개한 '편지' 는 구청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게시물 인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직과 청렴을 강조한 내용이다.

광산구는 군 공항 이전 후 부지 활용 계획, 금 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송정역세권 개발 등 여러 현안을 안고 있다.

면적은 광주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평균 연령이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도•

평동・빛그린・소촌・하남・진곡 등 여러 산업 단지가 자리하고, 광주 전체 외국인의 절반 이 상이 거주할 정도로 민원과 현안이 가득하다.

주민 박 모씨(33)씨는 "이번 6·1지방선거에 서 무투표로 당선된 탓인지 구정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임기가 4 년인데 광산구 지역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낼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충혼탑 참배, 시장 취임식 참석, 간부인사, 직원과 대화 등 행사가 이어지 다 보니 챙길 여력이 부족했다"며 "오늘 정책 향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프게 생각한 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광주전남병무청, '병역 이야기' 작품 공모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오는 9월 30일까 지 '병역 이야기' 작품을 모집한다고 3일 밝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부문으로 진행되며 병역이행 응원, 병역이행 모범사례, 공정 병역 등을 주제로 제작된 순수창작물을 제출하면

영상 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되며 장

르 제한 없이 30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하면

웹툰 부문은 스토리가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시사적인 메시지를 담은 1컷 이미지를 제 출해야 한다.

출품작은 대국민 선호도 ·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께 발표되며 우수작 총 38편에 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임채민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융4억가)

상무지구(상가매매)

2) 월수익 350만 (보4천)

3) 평수140평, (전용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경매교육 [투전만]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광주 |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아)**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아)**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 - 382 - 5500)